

< 차례 >

| | |
|--|----|
| 제1이사야서 20일 묵상집 | 1 |
| 제1이사야서 개요 | 3 |
| 제1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 6 |
| 제2과 하나님, 탕자 유다를 고발하다. | 9 |
| 제3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 13 |
| 제4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 18 |
| 제5과 포도원비유 | 21 |
| 제6과 위기의 시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 24 |
| 제7과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 27 |
| 제8과 돌아온 자만 내 백성이다. | 31 |
| 제9과 이새의 아들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제국 | 34 |
| 제10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삶 | 38 |
| 제11과 공허한 성에 부어지는 하늘의 기쁨 | 42 |
| 제12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는 하나님 | 47 |
| 제13과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술 취한 에브라임을 향한 화와 회복의 예언 | 51 |
| 제14과 겁먹은 아리엘을 향한 화와 회복의 예언 | 55 |
| 제15과 공의의 열매와 결과로 주어지는 평화 | 59 |
| 제16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 63 |
| 제17과 보이는 상황, 해석된 상황 | 67 |
| 제18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 71 |
| 제19과 상황(행위)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신앙 | 74 |
| 제20과 열방심판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 | 77 |

제1이사야서 20일 묵상집

구약성서에 수록된 문서예언서는 주전 8세기에서 5세기의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주전 8세기 앗수르가 중동을 지배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하였다.

중동의 주도권이 앗수르에서 바벨론제국으로 넘어가는 주전 7세기 후반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예언하였고 주전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다.

유다 멸망 직후 예루살렘에서는 오바다가 예언활동을 재개하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과 제2이사야(이사야40장-55장)를 쓴 위대한 익명의 예언자가 활동했다.

그리고 포로귀환 후에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 성전재건을 호소하고 제3이사야(이사야56-66장)를 쓴 선지자가 등장해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전재건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가 내부적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말라기가 등장하여 예언하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사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아왔다. 이사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면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을 수록하고 있는 전반부(1-39장과 포로기와 포로기 후기에 있을 유다의 미래를 예언하는 후반부(40-66장)로 나누어진다. 이사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대를 달리하는 세 권의 책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 이사야를 세 권의 책으로 보면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다루는 제1이사야서(1장-39장)와 포로기시대 이사야 계열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2이사야(40장-55장)와 포로기 후기 때 이사야계열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3이사야서(56장-66장)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는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1이사야서를 아침기도회 시간에 묵상해왔는데 받은 바 은혜가 커서, 8월 23일부터 9월12일까지 20일간 성도들

이 개인적으로 '제1이사야서 20일 묵상집'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제1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1이사야서 개요

제1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유다를 무대로 활동하던 궁중 선지자다.

그러므로 제1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주전 8세기 중동 국제정세의 가장 큰 변화는 자국의 안정을 취한 앗수르가 팔레스타인 정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전744-727년 통치한 티그랏 필세셀 3세는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주전734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어 사르곤2세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했다.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상위 계층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앗수르의 한 지방으로 전락하여 사마리아로 불리게 되었다.

앗수르는 윗시야가 살아 있을 때에는 유다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지만, 윗시야가 죽은 주전740년 이후부터 남유다를 수시로 침공하고 위협하며 조공을 받았다.

이사야서에서 남유다가 윗시야가 죽으면서 앗수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739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유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상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윗시야가 죽은 739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은 이사야 1장-6장에 수록되어 있다.

주전 734년 아하스(731-716)가 아버지 요담(747-731)과 공동통치를 하던 때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왕 베가(752-732)가 반앗수르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자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침공한다. 아하스는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고자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 때 이사야가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기 위해 수로작업에 여념이 없는 아하스를 찾아가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를 향한 여러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 7장-12장에 수록되어 있다.

야하스는 앓수르의 도움으로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킬 수 있었지만 이후 앓수르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고 만다.

주전 711년 히스기야는 지중해 연안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독립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는데 이 후부터 앓수르는 예루살렘성 안에 부대를 주둔시켜 유다를 직접 다스렸다.

이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앓수르를 쫓아내고 유다를 독립 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묵시로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사야의 묵시에 힘을 얻은 히스기야는 705년 사르곤 2세가 살해되어 앓수르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앓수르군을 쫓아내고 독립 하게 된다.

독립 후 히스기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지하수로 파 전쟁을 대비하고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앓수르군의 침공을 대비하였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열방과 언약을 맺는 언약파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주전 705년부터 앓수르의 침공이 일어난 701년까지 ‘화와 회복의 예언’이라고 하는 장편의 예언을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 24장부터 35장에 수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전 701년 앓수르 산헤립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와 애굽 정복에 나선다.

산헤립은 시리아, 뵈니게, 샤론 평야를 저항없이 정복하고, 읍바와 해안도시를 점령한 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정복에 나선다.

이에 히스기야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게 된다. 이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앓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보전 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내용은 35장-37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사야 38장-39장에는 히스기야가 앓수르군을 물리친 후,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입은 사건과 바벨론 신하들을 영접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후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은 이사야13장-23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유다의 상황 | 이사야서가 선포한 예언 |
|------------|---------------------------------------|----------------------|
| 739년 | 앗시아왕 사망 | 이사야1장-6장에 수록 |
| 734년 | 아하스때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함 | 이사야7장-12장에 수록 |
| 711년-705년 | 앗수르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시기 | 이사야24장-27장에 수록 |
| 705년-701년 | 앗수르로부터 독립한 후 앗수르의 재침공에 대비하는 시기 | 이사야28장-35장에 수록 |
| 701년 | 앗수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재침공한 해 | 이사야36장-37장에 수록 |
| 701년 이후(?) |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고 바벨론 신하들의 방문을 받은 때 | 이사야 39장, 13장-23장에 수록 |